

제 302호 · 2015년 4월 15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 KMI

##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 CONTENTS |

#### 물류정책·사업동향

1. APMT, 2016년 세계 최고 GTO 도약 목표
2. 중국, 라틴아메리카 두개 운하에 동시 배팅
3. 자메이카, 물류 인프라 개발에 50억 달러 투자 예정
4. 에버그린社, 인도-걸프 항로 서비스 개시

#### 물류시장동향

1. 극동지역 개발 위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2016년 운영 예정
2. CMA CGM, 카리브해~미국 동부 항로 신설 예정

#### 공지사항

1. 2015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 대상사업 모집 연장 공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 APMT, 2016년 세계 최고 GTO 도약 목표

- APMT는 최근 2016년에 이익 10억 달러, 순이익 900백만 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 2014년 APMT의 총 매출은 전년 대비 2.8% 증가한 45억 달러, 순이익은 19.7% 상승한 849백만 달러를 기록하고, 투자수익(ROIC)은 14.7%로 AP Moller-Maersk 그룹 계열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함
  - APMT는 이러한 매출 및 이익의 지속적인 증가 추이를 유지하면 2016년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연간 투자수익률을 12-14%대로 유지할 계획임
- 이러한 APMT의 성공 요인은 터미널 투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 운용과 아시아,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에서의 지속적인 투자에 기인하고 있음
  - APMT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시장이 향후에도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으며, 특히 아시아 시장은 전 세계 시장에서 가장 큰 부분을 계속해서 차지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라 현재 중국의 Ningbo항 및 Qingdao항, 인도의 피파바브, 인도네시아의 탄중팔레파스, 아프리카의 아비잔 등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에서 신규 터미널 건설 및 확장 사업을 진행 중임
  - 또한 최근의 저유가 경제는 항만운영사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있음
- APMT는 2014년 전 세계 64개 터미널에서 전년 대비 5.3% 증가한 38.3백만TEU를 처리하고, 2015년에도 유사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로테르담의 Maasvlakte2 터미널이 공식 개장되면, APMT의 처리 실적 증가뿐만 아니라 APMT의 미래 터미널 운영의 청사진이 될 것으로 예상됨
  - APMT의 Maasvlakte2 터미널은 시간 당 35-40개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는 자동화 터미널로 건설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검증된 APMT의 모든 기술을 적용할 예정임
  - 그러나 터미널 자동화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 APMT의 경우와 같이 GTO의 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진입 장벽도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가 AIIIB 창립회원국 자격을 획득함에 따라 향후 아시아 인프라 투자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항만분야에서도 향후 실질적인 투자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해서는 한국형 GTO를 조기에 육성하고, 향후 아시아 항만 인프라 투자와 연계한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 세계 항만운영 시장에 참여해야 할 것임

자료 : www.lloydslist.com, 2015.4.

김근섭 부연구위원 (☎ 051-797-4662, gskim@kmi.re.kr)

## □ 중국, 라틴아메리카 두개 운하에 동시 배팅

- 보다 빠르고 편리한 아시아 신행로 구축을 위해 중국이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라틴아메리카의 니카라과운하 프로젝트와 파나마운하 추가 확장 공사에 동시에 관심을 보임
  - 2014년 12월 중국계 기업인 HKND(Hong Kong Nicaragua Canal Development)사<sup>1)</sup>가 파나마 운하 이북에 총 500억 달러 규모의 니카라과운하 프로젝트<sup>2)</sup>에 착공함
  - 한편 8년간 53억 달러가 투자된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파나마 운하 2대 사용국인 중국이 파나마운하 추가 확장 공사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 < 니카라과운하 및 파나마운하 위치 >



출처 : 中國水運網(www.zgsyb.com)

-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기존의 파나마운하 1단계 프로젝트(전체 연장 77km)는 1914년 완공되었으며, 확장 부분은 사실상 하나의 새로운 운하로 2016년 초에 개통 예정임
  - 파나마운하 관리청(Panama Canal Authority)은 수요가 왕성할 경우 2015년 이후 추가 확장 건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임
  - 파나마운하 관리청 Francisco Miguez 부청장에 따르면 중국 국유 건설사인 차이나 하버 엔지니어링(China Harbour Engineering)사가 관리청에 추가 확장건설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음
  - 차이나 하버 엔지니어링사 미주 담당자 탕중둥(唐中東)은 파나마운하 관리청이 2014년 자사에

1) HKND는 홍콩에 본부를 두고 니카라과 수도 마나과시에 사무소를 둔 민간 인프라 개발회사임.

2) 태평양 연안 도시 브리토에서 카리브해의 푼타고르다를 연결하며, 전체 연장은 278km임.

연락한 적이 있으며, 그때 파나마운하 추가 확장에 대한 관심을 보였으나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임

-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가 완공되면 뉴 파나마급 선박이 통과할 수 있으며, 최대 13,000개의 컨테이너를 적재할 수 있음<sup>3)</sup>
  - 현재 파나마운하 통과 물동량 중 중국발 또는 중국향 화물이 1/4 이상으로, 이는 왜 중국이 파나마운하 추가 확장 공사를 통한 항로 개척에 관심을 보이는지를 알게 하는 대목임
- 니카라과운하 건설 프로젝트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완공되면 파나마운하를 통과할 수 없는 초대형 선박(최대 2만 5천개 TEU 적재 가능)들이 니카라과운하를 통과할 전망이다
  - 그러나 총 연장이 파나마운하의 3배 이상인 니카라과운하는 니카라과호를 가로 질러야 하고 수만 명의 거주자를 이전시켜야 하는 등 문제점들이 산재해 있음<sup>4)</sup>
  - Grupo Unidos por el Canal 컨소시엄<sup>5)</sup>의 CEO Giuseppe Quarta는 5년 안에 5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여 길이가 278km되는 운하를 건설한다는 것은 매달 약 10억 달러의 공정을 수행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엔지니어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힘
  - 뉴올리언스대(University of New Orleans) 국가항만 및 수로 연구소(National Ports and Waterways Institute)의 Asaf Ashar 교수는 니카라과운하 자체로는 영원히 수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나 주변 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그 비용을 보완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zgsyb.com, 2015.3.30.

김은우 전문연구원 (☎ 051-797-4772, hisgrace@kmi.re.kr)

3) 구 파나마급 선박에는 5,000개의 컨테이너만 적재 가능함.

4) 2014년 파나마운하 확장 공사 건설사와 파나마운하 관리청은 건설자금 초과 지출 부분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사업 중단을 한바 있으며, 현재 양측은 소송 중에 있음. 확장 공사는 비록 재개되었으나 전체 프로젝트는 예정 기간보다 1년 연장됨.

5) 스페인 Sacyr사, 이태리 Salini Impregilo사, 벨기에 Jan de Nul사 및 파나마 CUSA사로 구성됨.

## □ 자메이카, 물류 인프라 개발에 50억 달러 투자 예정

- 자메이카 정부는 국가 물류 인프라 강화를 위해 해외 투자자 그룹들과 50억 달러규모의 물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임
- 자메이카 Anthony Hylton 산업투자상공부 장관은 “자메이카 국가 물류 인프라 강화 정책은 ‘자메이카 물류 허브 이니셔티브 정책’에 따른 계획”이라고 언급함
- 자메이카 정부의 물류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2015 자메이카 투자 포럼(2015 Jamaica Investment Forum)에서 발표되었음
  - Anthony Hylton 장관은 “대형 물류센터 건립과 같은 주요 시설의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하여 카리브해 국가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언급하며, “다변화되어 있는 자메이카 경제 구조는 개발 및 투자 관련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는 투자자들에 최적의 투자처로 작용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임
- 자메이카 정부는 물류 기초 시설 투자 외에도 제조업,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금융서비스, 의료 관광, 영농업, 창의산업(creative industries) 등과 같은 분야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함
- 물류 허브 구축 정책은 자메이카 현 정부의 관심 프로젝트로, 자메이카가 가지고 있는 창고, 유통, 제조업 분야의 장점을 바탕으로 두바이, 로테르담, 싱가포르와 같이 미주지역 최대 물류 허브 역할을 계획하고 있음
- 현재 진행 중인 파나마 운하 확장 프로젝트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 지정 등과 같은 물류 시스템 개선 정책을 통해 국가 물류 인프라 확충을 비롯하여 세계 경제 및 무역 중심지로의 도약을 기대하고 있음

자료 : [www.logistics-business-review.com](http://www.logistics-business-review.com), 2015.3.13.

손보라 연구원 (☎ 051-797-4781, [bora62@kmi.re.kr](mailto:bora62@kmi.re.kr))

## □ 에버그린社, 인도-걸프 항로 서비스 개시

- 대만 에버그린(Evergreen)사는 중동 피더선사인 시마텍(Simatech)사와 파트너쉽을 맺고 첸나이(Chennai)-콜롬보(Colombo)-걸프(Gulf) 지역을 잇는 CCG서비스를 5월부터 개시한다고 발표함
- 본 신규 서비스를 위해 에버그린사는 2,000TEU급 선박 1척을, 시마텍사는 동일한 사이즈의 선박 3척을 투입하기로 결정함
- 주 1회 운항되는 상기 서비스는 5월 9일 콜롬보 항에서 첫 출항하여 비사카파트남(Vizag)항, 크리슈나파트남(Krishnapatnam)항, 첸나이항, 콜롬보항, 코친(Cochin)항, 제벨 알리(Jebel Ali)항, 소하르(Sohar)항을 거쳐 다시 코친항과 콜롬보항으로 회항할 예정임

<CCG Service 루트>



자료 : www.evergreen-line.com

- 에버그린사는 콜롬보항에서의 환적을 통해 상기 CCG서비스와 에버그린사의 글로벌 서비스 네트워크(Global service network)를 연계시킬 예정임
- 동남아시아 및 인도 지역 경제성장의 호조세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2년간 해당지역 물동량 상승이 예상됨
- IMF는 '15년도와 '16년도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14년 경제제성장률(5.8%)을 능가한 6.3%와 6.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또한 중동을 포함하는 인근지역의 경제성장률도 '15년 3.3%, '16년 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자료 : www.evergreen-line.com, 2015.4.7.

고재성 연구원 (☎ 051-797-4776, jsko@kmi.re.kr)

## 물류시장동향

## □ 극동지역 개발 위한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2016년 운영 예정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푸틴대통령이 극동지역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자 러시아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제도임
  -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과 유사한 개념의 자유항은 러시아 최초로 블라디보스토크에 시행되는 것임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운송 인프라망, 관광, 기술 개발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더 넓게는 극동 지역의 경제성장이 주 이유임
  - 또한 외국 기업들의 극동 진출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자유항의 가장 큰 장점임
- 최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짐
  - 법안은 공개 논제로 상정되어 있으며, 극동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각국 부처 및 기업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법률안에 대해 회의를 함
  - 주요 회의 안건으로는 자유항에 상주하게 될 외국인에 대한 무비자 법안 승인과 세금감면 혜택임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시행으로 한국기업을 포함한 해외기업들의 극동러시아 투자진출 확대가 예상됨

자료 : www.customstoday.com 2015.03.21

이하림 연구원 (☎ 051-797-4758, harimyi@kmi.re.kr)

## □ CMA CGM, 카리브해~미국 동부 항로 신설 예정

- CMA CGM은 이달 카리브해와 미국 동부를 잇는 새 항로를 개설할 예정임
  - 새로운 서비스 시작 발표와 함께 CMA CGM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자메이카의 킹스턴 컨테이너 터미널에 대한 30년간의 운영계약을 체결함
  - 본 항로에 매주 6척의 1,700TEU급 선박을 운행할 예정임
- CMA CGM은 킹스턴 터미널의 개발을 위해 약 6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밝힘
  - 파나마 운하의 입구에 위치한 킹스턴 터미널은 앞으로 CMA CGM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터미널 장비의 증설 및 추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힘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5.4.8.

김주혜 연구원 (☎ 051-797-4779, joohye915@kmi.re.kr)

## 2015년도 해운·물류기업 해외시장 진출 타당성조사 지원대상 모집 연장 공고

### ○ 목적

-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다양한 해외진출·투자사업의 발굴·추진과정에 수반되는 타당성조사분석(경제·기술·재무·법률 등의 측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 신청기업이 선정한 국내외 연구기관, 전문 컨설팅·시장조사 기관 등을 통한 타당성조사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 ○ 신청 대상자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라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자
- 재무적 투자자(「은행법」 제8조 따른 은행,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각종 연기금과 공제회 등)
  - \* 단, 재무적 투자자는 해외사업을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화주(貨主)기업(「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물류사업을 국내에서 영위하고 있지 않은 非물류기업 포함)
  - \* 단, 화주기업은 해외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할 해운·물류기업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함

### ○ 지원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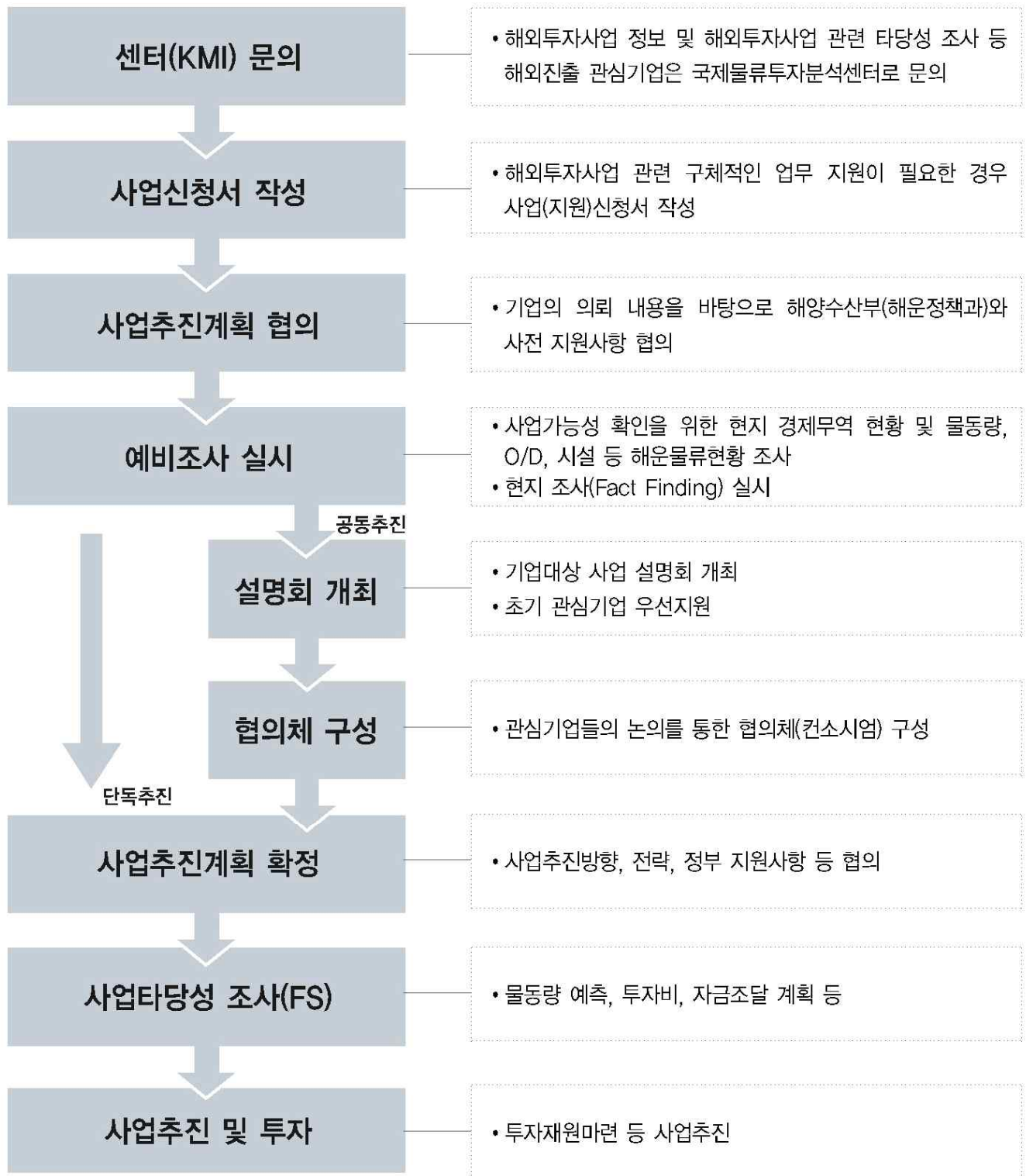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 국내기업이 희망하거나 계획 중인 해외투자 및 해외시장 개척·진출 등 다양한 형태의 해외 물류사업
  - \* 해외 현지법인 설립(단독, 합작, 합자 투자 등) 등 사업거점 확보
  - \* 현지 내수시장 물류사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업 등) 진출
  - \* 현지 물류기업(해운, 3PL, 육운, 창고, 포워딩 업체 등) 인수·합병
  - \* 해외 항만·터미널·물류센터 등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권 확보
  - \* 그 밖에 해외시장 진출로 인정되는 사업

### ○ 지원 내용 및 일정

- 타당성조사 1건당 최대 1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타당성조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기준으로 차등 보조(국고보조금+자부담 matching)
- 신청기간 : 2015. 4. 24(금) 18:00 까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십시오.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